

저 출산시대 대학생의 출산관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김 경 원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University Students's Views on a Childbirth in the Lower Birth Rates

Kim, Kyung-Won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nny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university students' views on a childbirth to gain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ir individual thinking and the meaning that it hold for them. **Methods:** A Phenomenological approach was used. Subjects were 10 university students who go to university in D city. The method proposed by Colaizzi (1978) was used to guide the process of data analysis. **Results:** The formulated meaning were classified into nine themes. And then the nine themes were finally grouped into five theme clusters as follow: 'a smooth life', 'the law of nature', 'living a real life', 'fear and burden'. **Conclusion:** University students' views on a childbirth reflect with the run of the lower birth rate and the aging population in Korean society. Therefore, nursing interventions should be directed toward supporting their positive thinking and changing their negative thinking on childbirth.

Key Words: Parenting, Students, Value of life, Qualitative research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9년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08년도까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2명으로 2007년도 (1.19명)와 2008년도 (1.20명)보다 약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85개국 중 184위로 최하위수준이다 (No, 2009; Planned Population Federation of Korea, 2009). 더욱이 저 출산은 노인인구의 급증과 맞물려 국가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며 저 출산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향후 국가의 존속을 의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저 출산의 원인으로는 개인과 가족 가치관의 변화, 결혼 기피현상과 만혼,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등을 들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20대 여성의 결혼기피현상과 만혼은 최근의 출산율 저하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Kim, 2005).

실제 여성들의 평균 결혼연령은 28.3세로 대부분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생식기능이 저하되어 수태율이 떨어지는 30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에서 임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출산도 늦어지게 되므로 1명의 출산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35세 이상의 출산도 9.2%나 되고 있어 고령임신에 따른 미숙아와 저체중아 출산까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 출산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Choi, 2009; Hwang, 2010). 또한 미혼직장인의 14%는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육아와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 (48.3%) 및 개인생활을 즐기기 위함 (31.7%)이라고 하여 (Yonhapnews, 2010), 여성의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저 출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과 가치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요어: 대학생, 출산, 가치관, 질적 연구

Corresponding author : Kim, Kyung Won,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nny University 165, Sang-dong, Suseong-gu, Daegu 706-828, Korea.
 Tel: 82-53-770-2261, Fax: 82-53-770-2286, E-mail: kyungwok@dhu.ac.kr

투고일: 2010년 4월 10일 / 심사완료일: 2010년 5월 2일 / 게재확정일: 2010년 5월 6일

그러나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는 여성이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사회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여성의 결혼가치관, 출산가치관, 그리고 성역할 가치관은 단기간의 정책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가족과 사회가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기부터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 교육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Lee, 2006).

이에 본 연구자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앞서 결혼적령기를 맞이하게 될 대학생들의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대학생들의 출산가치관은 몇 년 안에 우리사회의 결혼과 출산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공동의식까지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Jo, 2007).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출산가치관을 통해 청소년들의 결혼, 출산, 성역할의 가치에 대한 교육 방향을 결정한다면 청소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hin & Bang, 2008). 더욱이 저 출산이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고령화와 자녀양육, 그리고 경제위기와 관련된 정책들에 관한 많은 연구 (Do, 2006; Kim, 2005)가 시행되고 있지만 결혼과 출산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어 (Lee, 2006) 이와 같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심층연구는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출산관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과 관련된 요인들을 질적 연구를 통해 탐색함으로써 그들의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확인하여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출산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와 그 본질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출산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Colaizzi (1978)의 현

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귀납적 서술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연구의 참여자는 D시의 일개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본 참여자는 여학생 10명으로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저 출산과 관련한 강의를 주기적으로 2회씩 참석한 2, 3학년 학생들이다. 저 출산 관련 강의에 참석한 대학생들을 참여자로 한 것은 심층면접에 앞서 참여자들이 출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저 출산 교육 효과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참여자의 연령은 평균 22~23세에 속하며 1명은 25세였다. 참여자들의 경제적 수준은 상, 중, 하 가운데 7명이 중이며, 나머지 3명은 하라고 답하였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5명, 불교가 1명,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종교가 없다고 하였다.

가족관계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참여자가 1명이었으며 대부분의 참여자가 자신을 포함하여 2명의 형제자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 1명은 3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와의 만남은 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구목적 및 면담방법, 면담내용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 본 연구에 자의로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대학생들로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를 결정한 이후 각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다시 연구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면담 시 녹음을 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 녹음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치로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가 끝나면 녹음된 내용은 삭제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은 익명성을 보장하며 연구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참여자들에게 연구참여 동의서의 내용을 읽고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 서명을 받았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12월에서 2010년 4월까지로 연구참여자는 총 10명이었다. 자료수집의 심층면담은 “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내용에 따른 즉각적인 질문을 활용하면서 면담

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갔다. 면담하기 전 연구자가 미리 참여자와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서먹한 분위기가 가실 때 연구 질문과 관련된 면담을 시작하였다.

면담장소는 연구자의 연구실과 학교안의 빈 강의실을 이용하였으며 면담시간은 참여자의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강의가 없는 날이나 강의가 없는 시간 중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였다. 면담시간은 1회 40분에서 6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면담을 하면서 메모노트를 이용하여 참여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내용과 연구자의 생각 등을 기록하였다. 초기 면담자료를 보면서 부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계속 추가 면담을 실시하여 각 연구 참여자마다 2~3회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Colaizzi (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참여자들과 면담하여 녹음한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의 말 그대로를 글로 옮겨 기술하였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느낌을 얻으려고 하였다.

2단계에서는 기술된 내용에서 참여자들이 출산에 대해 갖는 생각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추출된 문장 혹은 구로 이루어진 의미있는 진술로부터 명확하게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 (theme)를 조직하였고 이 주제를 다시 묶어 주제군 (theme clusters)으로 조직하였다.

4단계 과정에서 주제군이 원 자료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반문하였으며 현상학적인 연구의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와 질적 연구의 경험이 많은 간호학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생각을 의미중심으로 본질적인 구조를 기술하였다.

5단계는 본질적인 구조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연구참여 3명에게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여 주어 내용이 그들이 갖는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상학 연구의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 2인에게 의뢰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의 엄밀성을 확립하기 위해 Guba와 Lincoln (1989)의 신빙성 (credibility), 적합성 (fittingness), 감사가능성 (auditability), 그리고 확정성 (confirmability)의 4가지 기준을 준수하려 하였다. 첫째로, 본 연구자의 편

견과 고정관념은 괄호 처리로 중립을 지키면서 면담과정을 유도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본 연구자의 지식적 편견을 개입시키지 않으면서 연구참여자와 질적 연구 전문가들로부터 본 연구분석결과에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하여 주제, 주제군의 범주화 과정을 보여주고 참여자의 진술을 분석의 근거로 제시하여 감사가능성을 지키려 하였다. 이와같은 기준을 준수하면서 확정성을 지키려 하였다.

연구결과

1. 의미의 구성

10명의 연구참여자로 부터 얻은 자료에서 도출한 중요 진술은 132개였다. 이 진술들을 하나씩 주의 깊게 보면서 원 자료와 분리되지 않게 연구자의 진술로 의미를 구성하였다. 대학생이 출산에 대해 갖는 의미는 ‘인생에서 해 볼만 한 일이다’, ‘자연스런 대물림이다’, ‘함께하고 의지할 수 있다’, ‘세상에 남기는 것이다’,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하다’, ‘활기의 원천이다’, ‘내 부모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다’, ‘여유있게 살기 어렵다’와 ‘출산과 양육이 걱정된다’의 9개의 주제(theme)로 구성되었고 최종적으로 ‘순탄한 인생’, ‘자연의 순리’, ‘사는 것처럼 사는 법’, ‘내 삶의 구속’, ‘두려움과 부담’의 5개의 주제군 (theme clusters)으로 범주화되었다 (Table 1).

2. 주제 모음

1) 순탄한 인생

(1) 인생에서 해 볼만 한 일이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출산은 아직 먼 이야기로 들렸다. 참여자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몇 년하고,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그 후에 아기를 갖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출산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당연한 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데 출산의 역할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더욱이 요즘같이 불임부부가 많은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의 결실인 아기가 태어나는 일만큼 좋은 일은 없다고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아이를 낳아 잘 키우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순탄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Table 1. University Students's Views on a Childbirth

Theme clusters	Theme	Formulated meaning
순탄한 인생	인생에서 해 볼만 한 일이다	아이를 낳아 잘 키우고 싶음 한 번 뿐인 인생에서 해 볼만 한 일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은 축복
	자연스런 대물림이다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아이에게 되돌려 주어야 함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임 나의 부모님처럼 하고 싶음 아이와 배우자와 순탄한 인생을 만들고 싶음
자연의 순리	함께하고 의지할 수 있다	외동이는 바른 인성을 갖지 못함 자녀가 의지할 사람은 자녀 능력껏 낳고 싶음
	세상에 남기는 것이다	세상을 떠나고 남는 것은 후손 나라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싶음
사는 것처럼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하다	길어진 노년의 돌은 행복하지 않음 단들이 맞는 죽음은 쓸쓸함 자식으로 부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
	활기의 원천이다	걱정을 하면서도 심심하지 않음 집은 활기가 넘치고 따뜻함이 묻어나야 함 복닥거리는 가정을 갖는 게 나의 바람
내 삶의 구속	내 부모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다	부모님처럼 자식에게 할 자신이 없음 홍부 같은 부모는 옳지 않음 내 자식이 최고라는 아줌마들의 사고방식이 맞지 않음
	여유있게 살기 어렵다	가족의 유대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이 중요함 인생을 즐기고 싶음 아이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싶지 않음
두려움과 부담	출산과 양육이 걱정된다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담스러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자녀를 키우기는 어려움 아이를 낳는 게 두렵고 무서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가 있는 편이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한 번뿐인 인생에서 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참여자 10).

결혼을 하여 아이를 가지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맞다를 떠나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은 축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4).

(2) 자연스런 대물림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남·녀 차별없이 동등한 교육과 대우를 받고, 동등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대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생활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출산에 대한 생각은 그들 부모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 하며 자신을 낳아 기른 어머니의 삶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신에게 항상 헌신적이었던 부모의 모습을 그

대로 답습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똑같이 그런 사랑을 물려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으로 비추어졌다.

나의 아이들은 내가 그래 왔던 것처럼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하여 양육할 생각이고, 이 안에서 다양한 전문 직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나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의 배우자와 순탄한 인생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참여자 9).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이 사랑은 부모자식 관계에서 밖에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것을 살아가면서 느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0).

2) 자연의 순리

(1) 함께하고 의지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많이 낳고 싶다고 하였다. 물론 결혼하고 직장생활과 취미생활

을 하다보면 2세의 출산이 늦어질 수 있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면 다른 일들은 포기하고 참여자가 직접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하였다. 참여자는 아이를 한 명 이상 낳고 싶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명만 낳아서 키우게 되면 참여자와 다른 가족들의 모든 관심이 온통 아이에게만 쏠리게 될 것이므로 아이는 남을 위한 배려나 협동심을 배울 기회가 없으며 바른 인성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외동이인 아이는 집에서 같이 어울릴 형제가 없어서 외로울 것이고 부모가 죽고 난 후에는 의지할 형제가 없어 더욱 외로울 것을 염려하였다. 이와 같은 생각은 참여자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아이가 여러 명이어서 함께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집이 부러웠다고 표현하였다.

부모세대는 어쨌든 자녀들 세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커서 의지 할 사람은 남아있는 자녀들이잖아요. 나도 지금 내 동생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동생이 더 귀하고 의지가 되거든요. 핏줄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요즘 세삼 느껴요 (참여자 6).

아이는 절대로 하나만 낳아서 키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롭기도 하고 외롭고 나의 정신을 온통 아이에게만 쏟게 되어 오히려 아이가 바른 인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참여자 10).

(2) 세상에 남기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우리의 저 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우리의 출산율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의무적으로라도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훗날 나이 들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될 때 혹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자신이 살았다는 제일 큰 흔적은 자식 즉 후손을 세상에 남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참여자들 역시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핏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컸으며 이를 반드시 출산을 해야 한다는 의지로 표현하였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세대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이예요. 이 이

야기를 듣고 보니 적어도 셋은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참여자 1).

나는 훗날에 나이가 들어서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또 내가 남겨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제일 크게 남기는 것은 자식, 후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2).

3) 사는 것처럼 사는 법

(1)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이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지만 앞으로 60년 이상은 더 살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늘어난 수명만큼 길어진 세월을 자식이 없이 부부만 산다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참여자들은 부부가 서로 지루하고 힘이 들 때 자식은 그 위기를 극복 하는 촉매제로 즉 삭막한 부부관계에서 자식은 윤활제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는 부부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기 보다는 자식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행복한 일로 여기며 자식의 존재는 인생을 행복하게 노년을 쓸쓸하지 않게 사는데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 점점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우리는 부부가 한번 결혼을 하면 약 60년 동안을 의지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 둘이서 60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2).

많이 늙어서 80대 정도 되었을 때, 자식이 없이 단 둘이, 혹은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그 또한 너무 쓸쓸한 일 이잖아요. 만약 자식이 없었다면, 시골에 홀로 외로운 날들을 보내며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3).

(2) 활기의 원천이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가정의 활력소라고 표현하였다. 부모님이 참여자 때문에 화났던 일, 속상했던 일, 기뻐던 일이 모두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랐고 외할머니가 자식의 힘든 것을 걱정하며 집에 오면 집안일을 다 해주면서 심심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가정이 활기가 넘치고 따뜻함이 묻어나려면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한 참여자는 TV의 '부모님 전상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외동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귀여움을 독차지 했던 서울 며느리가 시부모, 시동생, 시누이에 시고모까지 있는 집안에 와서 복적거리고 재미있게 사는 모습이

부러워 자신도 아이를 많이 낳아 복적거리고 살고 싶다고 하면서 아이는 집안을 활기있게 만드는 원천임을 확신하는 모습이었다.

우리 외할머니께서는 매주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 1박2일로 우리 집에 오셔서 맛벌이로 청소하기 힘든 우리 엄마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처음에 힘든데 왜 집안일 하러 오시는지 잘 몰랐는데, 외할머니는 우리 엄마를 도와주고 힘든 자식이 걱정이 돼서 가만히 못 있겠다면서 심심하지도 않고 좋다면서 계속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참여자 2).

우리 엄마, 아빠도 언니와 나를 보며 항상 “내가 너희 때문에 산다. 너희들을 보면 힘이 난다.”라고 하십니다. 자식으로 인한 화났었던 일, 속상했던 일, 기뻐던 일, 모두가 행복이라고... (참여자2)

4) 내 삶의 구속

(1) 내 부모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다

연구참여자들이 결혼해서 어떤 부모가 되는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들 부모가 살아온 모습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낳아 기르시는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헌신적인 사랑을 자신의 자식에게 줄 자신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소셜 속의 흥부 네처럼 경제적인 능력은 없으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부모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부모들처럼 자신의 자식에게 남들보다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을 삶의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자신이 그려왔던 부모의 모습과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그들 나름의 어떤 부모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내 부모처럼 살 자신이 없다고 표현하였다.

대한민국 아줌마, 엄마들의 사고방식. 내 남편 보다는 내 새끼, 어떻게든 새끼를 잘 키우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과제라고 하는 사고방식도 나와 맞지 않아요. 나는 평생을 함께 살 배우자와의 윤택제로서의 자녀를 원할 뿐 자녀를 위한 자녀는 원하지 않습니다 (참여자 8)

나도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고 어린 시절 부터 계속 나를 기르시는 부모님을 봐왔습니다.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아직 내가 어리고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자식이 있

어도 그렇게 많은 부분을 포기하면서 자식을 위해 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3).

(2) 여유있게 살기 어렵다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한 세대이다. 그들은 개인의 사생활과 부부의 생활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더욱이 부모가 없거나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은 가족관계에 얽혀 구속받는 것이 싫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결혼생활을 배우자와의 애정을 중심으로 꾸려나가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출산은 부부가 여유있게 삶을 즐기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도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출산을 부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거부한다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반드시 아이는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참여자들은 스스로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 하였다.

아버지가 없는 편부모 가정, 부모가 없는 가정, 혼합가족을 거치며 자라왔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의 유대관계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을 더 중요시 하고 구속을 싫어합니다. 자녀의 출산에 있어 어느 한쪽이 거부한다면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0).

나의 결혼생활은 나의 배우자와의 애정을 중심으로 꾸려나가고 싶어요. 아마 자녀가 없다면 서로에게 더 충실해질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여유로워 여러 취미생활과 여가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3).

5) 두려움과 부담

(1) 출산과 양육이 걱정된다

참여자들에게 아이의 출산은 바로 양육을 생각나게 하였다. 참여자는 미래에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러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생각이 깊어질수록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고 한다. 수중분만에 대한 동영상을 보면서도 아이를 낳는 게 너무 무서웠고 산모의 고통이 크다면 출산은 축복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욱이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노력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여자도 자신이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면 아이를 꼭 낳으려던 결심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만으로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경험하였다고 한다. 그런 참여자에게 출산과 양육에 대

한 걱정은 두려움과 부담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사실 난 임신에 대해 진심으로 하루에 한번 씩은 생각해요.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안 낳는다면? 등등.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샌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버려서 나는 아이 낳는 일이 너무 사실 무섭습니다 (참여자 8).

자녀를 계획하기 전에 부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많이 고민해보고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어느 한사람만 노력해서는 올바르게 자녀를 키워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0).

요즘에 사람들은 여자의 직장과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도 직장에 다니면 이러한 결심들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6)

논 의

본 연구는 저 출산시대 대학생들이 출산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와 그 의미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연구이다. 가치란 인간의 행동방향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Choi, 1995) 대학생들이 출산에 대해 갖는 가치 또한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출산에 대해 갖는 의미는 순탄한 인생, 자연의 순리, 사는 것처럼 사는 법, 내 삶의 구속, 그리고 두려움과 부담의 5가지 주제군으로 구성된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순탄한 인생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해 볼만한 가치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낳고 키운 것처럼 자신들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대물림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인생의 발달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여성을 곧 모성으로 인식하며 결혼을 통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을 의무이자 책임으로 생각했던 부모의 행동특성이나 태도가 그대로 자녀에게 투사되는 일종의 자아확장의식으로 (Lee et al., 2009) 생각된다. 또한 참여자들이 Erikson이 주장하는 성인중기의 발달과업이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의 완수임을 (Park, 2007) 학습을 통해 인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Son (2000)도 출산을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경이로운 경험이라고 하였으며, Jo (2007)는 모든 여성은 모성을 타고난 존재로 인식하고 기혼여성의 일차적인 의무는 출산과 양육하는 모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Kim (2001)은 한국사회에서 결혼 후 임신과 출산은 여성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여자임을 인정받는 정체성의 핵심임을 보고하여 본 연구참여자들이 출산을 자연스런 삶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로 연구참여자들이 출산에 대해 갖는 의미는 자연의 순리였다. 참여자들은 아이를 1명만 낳는 것은 아이의 인성 교육에도 좋지 않으며 자신이 죽고 없을 때 자식이 홀로 남겨질 것이 걱정되어 많이 낳고 싶어 하였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출산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이와같은 생각은 홀로 남겨질 아이에 대한 걱정, 자신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흔적과 저 출산으로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의해 형성된 생각으로 참여자들이라도 아이를 많이 낳아 이 문제를 극복해보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점에 대해 Kim (2008)은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사회와 국가를 지지하는 원천이므로 출산을 안 하게 되면 지지체계가 흔들려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하여 (Lee, 2006)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출산하는 것이 순리를 따르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연구참여자들에게 출산은 사는 것처럼 사는 법으로 인식되었다. 참여자들에게 아이는 길어진 노년의 삶을 쓸쓸하지 않게 할 것이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존재이며, 아이로 인해 걱정과 기쁨이 뒤섞인 집안은 곧 활기의 원천이었다. 이는 출산을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하지만 자녀로 인한 심리적인 보상은 다른 어떤 종류의 기쁨이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ee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출산에 대해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그들 부모가 자신들로 인해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기뻐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었고 이제는 성숙된 자신들에게 의지하는 모습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가족이 많아 일은 많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진 드라마를 통해서도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뜻한다. Sin과 Bang (2008)도 출산율을 높이려면 청소년기부터 출산과 다산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긍정적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에게 출산은 내 삶의 구속으로 그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의미로도 여겨졌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자식에게 헌신할 자

신은 없지만 낳기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흥부같은 부모는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는 출산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여자의 이와같은 모습은 가족이나 친척,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생활과 자아 성취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점에 대해 Lee 등 (2009)은 현대사회가 부모가 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Shin과 Bang (2008)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89.2%가 출산에 긍정적이며 20.5%의 대학생이 3명 이상의 자녀출산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여 출산을 삶의 구속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통해 저 출산 극복이 희망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출산에 대해 갖는 의미는 두려움과 부담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출산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을 걱정하였는데 이는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이 가정과 육아를 책임졌던 전통적인 성 역할이 현대에 와서도 바뀌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므로 가사와 육아를 남성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고집하므로 여성은 두려움과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Shin과 Bang (200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대부분은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아버지는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여 시대가 바뀌어도 남녀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가치관은 변화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Choi (2009)와 Hilgeman과 Butts (2009)도 20대 여성의 고학력화와 그들의 경제활동 증가가 양육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하여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여성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줄이는 것으로는 저 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 여성의 직장생활과 육아의 병행을 위한 정책지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경제성장과 동시에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출산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귀납적 서술연구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저 출산과 관련한 강의를 주기적으로 2회씩 참석한 대학생들로 여학생 10명이었다. 자료수집

은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분석은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인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인 대학생들로부터 132개의 의미있는 진술이 도출되었으며 이 진술들을 27개의 공통적인 의미로 묶고 다시 9개의 주제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탄한 인생’, ‘자연의 순리’, ‘사는 것처럼 사는 법’, ‘내 삶의 구속’, ‘두려움과 부담’의 5개의 주제군 (theme clusters)을 조직하였다.

순탄한 인생은 ‘인생에서 해 볼만한 일이다’, ‘자연스런 대물림이다’의 주제에서 도출되었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출산을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부모에서 그들로 그리고 그들의 자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인생을 순탄하게 사는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자연의 순리는 ‘함께하고 의지할 수 있다’, ‘세상에 남기는 것이다’의 주제에서 도출되었는데 이는 자식들끼리 남아서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이 떠나도 자손을 남기면 국가가 대대로 이어져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사는 것처럼 사는 법은 ‘행복하게 사는게 필요하다’와 ‘활기의 원천이다’로 자식이 있어 길어진 노년을 함께하는 것이 쓸쓸하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자식으로 인해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 자체를 활기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내 삶의 구속은 ‘내 부모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다’와 ‘여유있게 살기 어렵다’에서 도출되었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부모를 보면서 부모처럼 헌신적으로 부모 노릇을 할 자신이 없음과 자식이 있다면 여유있게 살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여유있는 자신의 생활을 깨지 않겠다는 개인주의적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려움과 부담은 ‘출산과 양육이 걱정된다’로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 양육에 대해 부담으로 임신에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해야 될 지에 대한 망설임이 포함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참여자들은 출산을 한다는 것은 인생을 순탄하게 사는 한 방법으로 현재처럼 저 출산시대에는 의무적으로 많이 낳는 것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자녀를 낳는 것이 사는 것처럼 사는 법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을 결혼생활과 그로 인한 출산은 자신의 삶을 구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임신과 출산을 두려움과 부담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대학생이 출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저 출산 극복을 위한 간호 중재는 출산과 양육이 참여자들 스스로가 삶을 구속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자녀의 출산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주는 가치가 더 크다는 점과 인생의 참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교육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들에게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에 관한 지속적인 가치교육을 실시한 후 그들 출산가치관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대상자들의 출산관이 실제 출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Choi, K. S. (2009). Shadow cost of labor market and increase of age at delivery in women. *KDI Policy Forum*, 218, 1-14.
- Choi, Y. S. (1995). *Family stress in families with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Colaizzi, F. U.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o, M. H. (2006). The directions of family welfare policy for strengthening parents' child rearing function in an age of low fertility. *Korean J Fam Welfare*, 11(1), 93-112.
- Guba, E. G., & Lincoln, Y. S. (1989).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Hilgema, C., & Butts, C. T. (2009).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A welfare regime paradox. *Soc Sci Res*, 38, 103-17.
- Hwang H. K. (2010). Rapid increase of premature babies by the old age pregnancy. Retrieved May 19, 2010, from YTN Web site: http://www.ytn.co.kr/_ln/0103_201005191139287895
- Jo, J. Y. (2007). *Study for the conflict and negotiation of "child-free women": Focusing mainly on the living lif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Kim, C. S. (2008). *Factors that influence women's decision on pregnancy-childbir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E. S. (2001). *Childbirth culture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woman's body, culture-politics of body*. Seoul: Another Culture.
- Kim, Y. I. (2005). *National practical strategies about the falling birthrate and the aging of society*. Policy Forum, April, 2-5.
- Lee, S. S. (2006). A study on impact of the lif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Health Soc Welfare Rev*, 26(2), 95-138.
- Lee, K. H., Chun, Y. S., Goh, M. S., Kim, H. J., Park, N. J., Park, Y. J., et al. (2009). *Maternity & women's health nursing*. Seoul: Hyunmoonsa.
- No, J. H. (2009). Total birth rate, the lowest. Retrieved November 1, 2009, from Dong-a ilbo Web site: <http://news.donga.com/3/all/20091119/24208435/1>
- Park, A. C. (2007). A review of Erikson's developmental frameworks in human development. *J Soc Sci*, 26(2), 143-163.
- Planned Population Federation of Korea (2009). *World Population 2009 Report*. Planned Population Federation of Korea.
- Shin, H. Y., & Bang, E. R. (2008). Youth perception on childbirth & marriage. *J Future Orient Youth Soc*, 5(3), 95-113.
- Single office women, I do not give birth to a child. Retrieved April 26, 2010, from Yonhapnews Web site: <http://www.yonhapnews.co.kr/>
- Son, S. A. (2000). *Heurmeneutic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n the first lived experience of mother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